

중학교 지유학사지

www.m-teacher.co.kr
edu.donga.com



11년만의 남북정상회담과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커지면서 전 세계의 시선이 한반도에 집중되고 있다. 지난 달, 대북 특사로 북한을 방문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만난 뒤 “4월 말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했다”고 발표하면서 남북정상회담이 합의 됐음을 공식화했다. 이후 곧바로 미국을 방문한 정 실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면담을 가진 뒤 “트럼프 대통령은 항구적인 비핵화 달성을 위해 김정은 위원장과 금년 5월까지 만날 것이라고 했다”고 발표하면서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이 이뤄질 것임을 알렸다.

이번에 합의된 남북, 북미정상회담은 김정은 위원장의 제안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극히 이례적이다. 지난해 9월에는 6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11월까지만 해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하는 등 도발을 일삼던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는 선대의 유훈”이라며 전격적으로 비핵화 의지를 밝히고 미국에 대화를 요구하는 등의 태도 변화를 보이면서 국제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

북한의 제의로 합의된 이번 정상회담은 향후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정상회담의 합의 과정과 함께 중국, 일본 등 주변국의 반응을 살펴보고, 이번 회담이 한반도 비핵화를 이끄는 단초가 되기 위해서 넘어야 할 산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핵 고수하던 北 김정은, 갑자기 대화 나선 배경은?

이번 정상회담 합의 과정은 매우 이례적이고, 파격적이었다. 지난해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의 도발로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강도 높은 대북제재결의안을 채택했고,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유례없이 강력한 경제 제재를 북한에 가했다. 이런 흐름은 올해 초 반전되기 시작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를 발표하며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 대표단을 파견하고, 이를 위해 북남 당국이 만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대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이후 남북 관계는 급속도로 개선됐다. 남북 실무자들이 판문점에서 만나 올림픽 개회식 공동 입장과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 등의 합의를 이끌어냈고,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을 올림픽 기간에 특사로 보내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하도록 했다. 그리고 지난달, 북한은 대북 특사단에게 “비핵화 협의를 주제로 미국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며 북미정상회담도 제안한 것이다.

갑작스런 북한의 태도 변화는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 국내의 한 대북 전문가는 “북한에 우호적인 중국과 러시아까지 대북 제재에 동참하자 북한으로서는 더 이상 돈을 얻을 곳이 없어졌다”며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제 제재로 북한은 수출입이 힘들어져 경제가 침체됐고, 향후 이것이 체제 불안정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대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남북·북미 정상회담 합의 바라보는 중·일의 복잡한 속내

이번 남북, 북미정상회담 합의는 그 여파가 회담 당사국에게만 미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특히 일본과 중국은 우리나라와 미국, 북한과 각각 외교·안보·경제 분야에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이번 회담 합의에 그 어떤 나라보다 촉각을 곤두세운다.

일단 중국과 일본은 남북, 북미 정상회담 합의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지난달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만나 “한국의 노력으로 한반도 정세 전반에서 큰 진전이 이뤄지고 북미간 대화가 이뤄진 것을 기쁘게 평가한다”고 밝혔고, 일본 아베 신조 총리 역시 서훈 국정원장에게 “북한이 비핵화를 전제로 대화하는 것에 대해 일본은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두 나라 모두 이번 정상회담 개최 과정에서 자국의 역할이 축소된 데에 대해 우려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중국은 기존에 북한과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북핵 문제를 조율하며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하지만 이번 회담 합의가 우리나라와 북한, 미국이 각각 주도해 성사되면서 중국은 회담의 결과를 그저 바라봐야만 하는 상황에 처했다는 것.

일본도 중국과 비슷한 상황이다. 일본 내에선 “북한이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는 한 대화는 없다”는 일본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사전협의 없이 북한과의 대화를 결정해 충격을 받은 모양새다. 일본은 외교·안보 분야에서 미국과 긴밀히 협력해 왔는데, 이번 정상회담 합의 과정에선 일본이 배제됐다는 것. 일본의 한 언론은 “일본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둘러싼 협상이 일본을 제외한 채 진행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 내에서 ‘일본이 고립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수차례 비핵화 합의 파기한 북한, 이번엔 다를까?

정상회담 합의로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 기대가 높은 상황이지만 아직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 핵미사일 시험 발사로 국제 사회를 위협하던 북한이 갑자기 대화를 요구하고 나선 데에는 숨은 속셈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 때문. 국내 한 군사전문가는 “북한이 과거처럼 회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챙기고 필요하면 회담을 중단하거나, 추후 필요에 따라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재생산을 고민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근본적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있다. “체제 안정이 보장되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북한의 입장은 북한이 과거에도 꾸준히 해온 말이라는 것.

하지만 한반도 평화를 위해 북한의 비핵화는 반드시 이뤄야 할 문제. 전문가들은 과거 북한이 여러 차례 국제사회와 약속을 파기한 전례를 고려해 정부가 신중한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한 대북 전문가는 “정부는 북한이 핵 폐기에 진정성을 갖고 나온 경우와 북한이 과거처럼 핵을 포기할 것처럼 하면서 실제로 핵 개발은 계속 진행하는 경우를 모두 고려해 외교 전략을 펼쳐야 한다”며 “북핵 폐기를 목표로 핵 문제를 해결해야지 타협하는 결정을 내려선 안 된다”고 말했다.

▶ 김효정 기자 hj_kim86@donga.com

생각해볼 문제

1. 북한이 갑자기 비핵화를 전제로 국제사회에 대화를 제안한 이유에 대해 조사해보자.

2. 중국과 일본이 남북·북미정상회담 합의에 각각 어떠한 입장을 보이는지 정리해보자.
3. 한반도 평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우리나라와 북한, 미국은 각각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할지 생각해보자.

교과서 찾아보기

사회② 7. 통일 한국과 세계 시민의 역할

사회② 12. 국제 경제와 세계화

사회② 13. 국제 사회와 국제 정치

참고자료

동아일보, 2018년 3월 10일자,
트럼프-김정은, 5월 '운명의 核담판'

지도법

학생들은 남북, 북미정상회담의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업에 앞서 세 나라가 정상회담을 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전제로 우리나라와 미국에 대화를 요구한 것은 정상적인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나서겠다는 의미도 있지만, 전 세계의 강력한 경제 제재로 인해 악화된 북한 내부의 경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서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북한이 갑자기 태도를 바꾼 이유를 다각도로 생각해볼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번 정상회담 합의가 한국, 미국,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에 미칠 영향 등을 조사하며 국제사회에서 국가간의 관계를 이해해 보고, 우리 정부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자세로 정상회담에 임해야 할지 의견을 공유하면 학생들은 훨씬 넓고 깊은 시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 김나영 서울 양정중 사회교사